

退溪의 人間觀**

잉거보르크 괴텔 (Ingerborg Göthel)*

고려왕조가 붕괴함에 따라 한반도를 지배해온 불교는 사회생활을 통제하는데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정신생활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조선왕조의 창업자들은 그들의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찾게 되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유학이 윤리적·정치적 가르침으로서 가장 적절하였다. 유학은 서력기원 직후에 불교와 거의 동시에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유학은 고려왕조가 멸망한 이후에야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1392년부터 세력을 얻은 유학은 마침내 불교국인 옛 고려를 압도하여 신유학적 국가로 대체시켰다. 그들은 宋代의 중국에서 그들의 이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에서 그들은 현존하는 모든 유학사상을 정리한 중국인 주희(1130~1200)의 가르침을 이용했다. 뒤에 이것은 신유학으로 명명되고 윤리학적으로 유교적 가르침의 가장 강력한 형이상학적 주장으로 규정된다.

새로운 조선왕조의 국가이념으로 도입된 신유학은 그 이념에 따라 정치사회적 구조를 창조했다. 신유학은 정치적인 면에서 국가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증명됨에 따라 새 왕조에 도움을 주었다. 신유학의 이념은 통치엘리트의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신유학의 도움으로 그들은 사람의 행위는 물론이고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통제하려고 하

* 독일 훔볼트대학 교수

** 원제: The Humane image of the human being by T'oegye. 이 논문은 퇴계학 연구소, 『퇴계학보』 제75, 76호(1992년) 게재 논문임.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의 통치가 100여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신유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무렵 퇴계 이황(1501~1570)이 등장했다. 경상도 지방의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난 퇴계와¹⁾ 고봉, 율곡 등의 다른 신유학자들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넓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유학의 기본원리에 관한 그들 사이의 학문적 토론을 통하여 16세기 한국의 지적 생활에 하나의 독특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퇴계는 격동의 시대에 살았다. 퇴계의 출생이전과 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1498, 1505, 1519, 그리고 1545년의 소위 4대 사화는 당시 한국의 정신적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권력투쟁 과정에서 많은 젊은 학자들이 숙청되기도 하였다.²⁾ 퇴계가 극히 복잡한 주변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의 형이 사회로 희생되는 개인적 슬픔을 겪으면서도 집요하게 학문을 계속한 것은 그의 인간적인 위대성과 지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학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퇴계는 일생동안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고 지배계층으로 남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그의 일생은 반복되는 관직의 사퇴로 이어졌지만 조정의 압력에 굴복하여 학문에 집중하려는 시도가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그의 저술에는 하나의 뚜렷한 특징을 지니게 된다. 퇴계는 많은 저술을 함으로써 한국의 신유학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음 세대의 학자들에게 끼친 그의 영향은 지대하다.”³⁾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이황에게서 한국의 주희를 보았던 것이다. 일본의 신유학 발전도 퇴계없이 생각할 수 없다.

하나의 윤리적·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신유학은 사회를 투명한 통치질서로 이끌었고 공자의 요구에 따라 사회적 상황을 유지하게 하였다. 즉 “임금은 임금다와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와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와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와야 한다”⁴⁾는 것이다. 신유학이 도입됨으로써 사회

1) 정순목, 『퇴계평전』(서울, 1987), p.14. 참조

2) see Göthel, I, *Geschichte Koreas*, Berlin 1978, p.53.

3) 『조선철학사·상』, 평양, 1960, p.130.

적 관계는 보다 강하게 조직화되었다. 당시의 신분사회 속에 군신, 부자, 부부, 장유, 그리고 봉우의 다섯 가지 기본관계가 정립되었다. 그 관계들은 일상생활을 결정하였고 또한 정확한 행위방법을 규정했다. 옳은 행위란 신유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사회 속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는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했다. 신유학은 사회에서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도록 요구한다. 신유학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매우 강조한다. 상호존중, 인간에 대한 사랑,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배려, 정의, 성실, 공경, 정직, 믿음, 그리고 철저한 의무이행 등이 신유학이 공언하는 교육목표이다. 동시에 신유학은 특별한 학습을 강조한다. 신유학에서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스스로의 노력과 독학이 중심에 놓여진다.

공자에 의하면 인간의 태도와 기능은 자신의 윤리적 행위로부터 유래한다. 통합과 복종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물론이고 복종하는 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유학의 기본가치에 속한다. 위대한 정신적 유산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그의 시대에 충실했던 이황은 행위규범과 윤리적 가치를 정하고 종국적으로는 인간상의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신유학의 전통에 따라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윤리를 기초로 하여 인간관계를 규정해야 한다. 퇴계는 선조임금(1568~1608)에게 올린 글에서 자신의 인간상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인간은 만물 가운데서 가장 귀합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중심입니다.”⁵⁾ 지배계급의 의무를 생각하거나 이황 스스로 신분제도와 평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더라도 이 말은 그의 진정한 인간애를 보여주는 것이다. 퇴계는 하늘과 인간을 동일한 지위에 둔다. 그 당시로 보면 이러한 입장은 인간의 지위를 격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유학의 다섯 가지 기본규범을 따를 때에만 의미를 지니므로 여성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적용될 수 있

4) Moritz, R. (ed.), *Konfuzius*, Leipzig 1982, p.96.

5) 『퇴계』, 서울 1972, p.293.

는지가 문제된다.

공자와 맹자가 정리한 윤리적 기본가치-도덕적 개선과 인간교육이 선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는-에 기초하여 퇴계 역시 인간의 자기수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의 자기개선은 실행가능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실천은 인간본성의 한 요소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상은 왕양명(1472~1529)의 이론에 대한 퇴계의 논의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만약 우리가 선을 좋아한다면 단지 선을 마음으로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근절시켜야만 한다.”고 이황은 주장했다.⁶⁾ 이러한 사상은 사단과 칠정의 관계와 관련되고 퇴계와 동시대인이었던 정지운(1509~1561)이 1536년에 쓴 이기이원론과도 관련된다. 정지운에 의하면 인, 의, 예, 지의 사단은 ‘이’에서 발하고,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의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 퇴계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와 ‘기’가 따로 발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였다. 퇴계의 생각도 그러하듯이 인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것은 인간이 마음의 작용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가 ‘이’를 따르고 따라서 칠정은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16세기의 다른 저명한 신유학 학자인 율곡 이이(1536~1584)는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율곡은 ‘이’와 ‘기’의 분리를 거부하여 ‘이’와 ‘기’는 모두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율곡은 ‘이’와 ‘기’가 서로 묘합하기 때문에 둘 다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퇴계에 있어서 ‘이’는 선의 근원인 반면에 인간의 악은 ‘기’의 작용에 달려있다. 그는 “칠정은 본래 선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상은 본성적인 것은 그 자체가 선하다는 그의 이해에 기초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퇴계의 견해는 일방적이어서 그는 생득적인 선은 인정

6) Deuchler, M., *Reject the False and Uphold the Strzight Attitudes Toward Heterodoxy Thought in Early Yi Korea*, in Wm Theodore de Bary and JaHyun Kim Haboush(ed.), *The Rise of Neo-Confucianism in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p.389.

하지만 생득적인 악은 인정하지 않는다.”⁷⁾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퇴계가 그의 학파를 위한 입지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의 문하에는 많은 석학들이 배출되었고 조정과 관직에서 요직에 오른 인물도 많았다. “300여명의 제자들이 역사에 저명한 이름을 남겼다. 10여명의 제자는 정승이 되었고, 대사간도 10명에 달했으며 시호를 받은 제자도 30여명에 이르렀다. 또한 8명의 제자는 서원건립을 허락받았다.”⁸⁾

이러한 사실은 퇴계가 인간상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는 이황의 서거 직후에 명백히 드러났다. 1575년에 최초의 붕당이 발생하여 다시 격렬한 내분이 불붙었던 것이다. 그러한 내분은 조선왕조 말까지 지속되어 한국에 큰 손실을 끼쳤다.⁹⁾

(이 원 열 譯)

7) see Vos, F., *Die Religionen Koreas*, Stuttgart, 1977, p.167.

8) 윤사순, “성선설로써의 퇴계의 인성관” (코리아 저널, 1985.7), p.13.

9) Kang Chu-Chin, *The Influence of The T'oegye in The History of Yi-Dynasty*, in *Coree*, (Paris, 1977) p.60.